박지현 '586 용퇴' 발언에 민주당 지도부 파열음

"지도부와 상의하라 " 비판…당 쇄신안도 논의된적 없어
대변인 "선거 전 반성하는 모습 진정성 있을지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신의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 등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지엽적인 문제로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혁신의 비전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반성과 사과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히 사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용퇴론'을 두고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완수한 만큼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동석한 86그룹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을 앞에 두고 86퇴진론을 면전에서 꺼낸 셈이다.

김 본부장은 당장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본부장은 "질서 있는 혁신 과정에서 각종 현안이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민주당은) 지도부 일방 또는 개인의 지시에 처리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선대위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참석자 다수는 박 위원장의 태도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개 회의에 앞서 비공개회의에서 발언 내용을 조율하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전날 회견에 이어 박 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문제가 제기됐다.

전해철 의원은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하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결국 "이게 지도부인가"라고 말하고 회의실을 떠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회의실 밖에 대기하던 취재진에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당은 이 같은 지도부 내 갈등상의 악영향을 우려한 듯 박 위원장의 언급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의 발언은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개인 의견"이라며 "다만 선거 전 서둘러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의견과 개인 의견을 분리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위원장의 태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당 대변인이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반성과 사과를 둘러싼 당 지도부 내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위원장의 입장을 당과 분리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는 듯하지만, 당의 투톱은 서로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며 "(박 위원장이) 향후 정치적 행보를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개인 행보에 대해 당이 협의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도 "같이 사과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윤 위원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했다"라며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협의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맞는지 윤 위원장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내 갈등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 간 입장도 양분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의 사분오열 조짐에 박 위원장이 금주 중으로 예고한 쇄신안 발표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쇄신안은) 금시초문이고 지금도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이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25일 광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까지 158기간 철야유세를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3000배로 표심잡기…진보당, 158시간 철야 유세

정의당·진보당 '민주당 대안 정당' 놓고 광주서 총력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상승세 위기감…비례 의석 경쟁

정의당과 진보당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27~28일)을 앞두고 광주에서 민주당의 대안 정당으로 자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진보성향이 강한 광주에서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들 진보정당이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소수 의석이라도 입성을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25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선거일까지 3000배를, 진보당은 선거일까지 158시간 철야 유세에 돌입하는 등 광주시의회와 기초의회 입성을 위해 막바지 지지 호소에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날 5·18 민주광장에서 대시민 사과를 한 뒤 사죄와 참회의 의미로 108배를 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의당은 광주 정치의 대안이 되지 못했고, 이는 모두 정의당이 부족한 탓이다"면서 "그렇지만, 정의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정의당을 바로 세워 광주에서부터 정의당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토양에서도 광주에서 대안 야당의 싹을 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의당 후보들이 시민 편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3000배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보당도 이날 김재연 상임대표와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광주지역 출마자 28명이 '광주 제1야당·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158시간 철야 유세에 돌입했다.

진보당은 광주에서 정당 투표 20%이상 득표를 통해 광주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진보정당 최초의 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원 지역구 20곳 중 무려 과반 이상이 민주당 후보로 무투표 당선되면서 광주시의회는 또다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대안세력이 진보당인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에서는 광역의원 후보 6명이 출마했다.

한편,통상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3석인데, 이 가운데 정당 득표율을 감안해 그동안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갔고, 진보정당이 1석을 가져갔었다. 진보정당은 제4회 전국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비례대표를 배출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

민주당 반발…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은 위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이다"고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은 결국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일상까지 뒤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조직 설치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성홍 광주시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 거부

정성홍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25일 강동완, 박혜자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작금의 단일화 제안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변하는 것"이라며 "결과만을 중시하는 반교육적인 단일화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박혜자 후보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철학과 고집이 아닌, 특정 단체의 아집과 진영논리가 아닌 광주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시민들과 단일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완 후보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는 박혜자·정성홍 후보에게 '3자 단일화'를 제안했고, 박 후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지분·땅
삽니다. 010-6837-4700

처분하기 힘든 전국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중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용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조대부고 총동창회 26차 회기 정기총회
일 시
2022. 5. 30.(월) 오후 6시30분
장 소
데일리웨딩컨벤션
• ☎ 062-371-3500
• 광주 서구 상무대로 683

식품공장매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현 가동중
HACCP 인증 (~2025년 1월)
멸균기, 금속검출기, 자동포장기 등 레토르트 제조 설비 완비
공장 대지면적 620㎡/ 총 면적 = 478평/ 건축면적 198㎡
경량철골구조(2018년 완공)/ 주택 포함 (신축, 넓음)
생산 제품 (네이버 평점 4.7) 및 HACCP 운영 도움 가능
매매가 6억 (모든 설비 포함)
매물 사진 및 추가문의 010-3614-300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141-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안치장소 : 담양군립오룡공원(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산29)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 박병근(전남 담양군 무정면 칠전길 119), 010-4447-0482
9. 신고시 구비 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공고인 : 박 병 근

채권 신고 공고(2차)
본 법인은 1984년 5월 10일 성립되었고, 2001년 12월 8일에 해산 간주되었습니다. 해산 간주 시 청산인으로 취임된 청산인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청산인이 잔존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11일 취임하였습니다.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서기 2022년 6월 22일까지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리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26일
주식회사 수월산업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19
청산인 장 내 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